
서평

고백과 문학, 역사와 증언
— 균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음,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
오도엽 씀,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고백과 문학, 역사와 증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음,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 삼인, 2009

오도엽 씀,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후마니타스, 2008

이명원
문학평론가

1. 문학과 역사의 상호침투

최근 들어 비허구 문학(nonfiction)의 범주에 해당되는 다채로운 기록물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소설쓰기나 역사기술의 정통적인 재현서사(representation narrative)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낳은 글쓰기의 변형을 보여주는 사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재현서사란 과거에 존재했으나 이제는 망실된 기억을 글쓰기를 통해 복원하고 현재화하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재현서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기술이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재현하는 일이고, 소설은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을 과거의 역사적 자료에서 추출하는 허구적 서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기술한 역사와 소설에 대한 개념규정인데, 역사적 사건이 일회적인 특수성에 갇혀 있다면, 문학은 전형화된 보편성을 표현한다는 그 특유의 소설 우위론을 피력한 견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글쓰기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일반화된 재현서사와는 이질적인 실재하는 개별자들의 증언과 고백의 서사들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 검토하게 될 군의문사 유족들에 대한 르포집인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삼인)이나 이소선 여사의 구술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오도엽의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후마니타스)는 공히 작가의 주관보다는 증언자의 육성어린 고백을 전경화하고 있는 비허구 서사양식인 것이다.

이런 비허구 서사양식들은 공식역사의 범주나 소설적 허구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그간 공식역사가 포괄할 수 없는 개인사적 진실과 소설적 전율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은폐된 진실을 발굴하고 증언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글쓰기의 현장이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 양식 속에서 문학의 고백기능과 역사의 증언기능은 화학작용과 유사하게 긴밀한 상호침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니와(구술사적 접근방식이 그렇다), 그 의미에 대한 탐구가 긴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살아남은 자의 증언, 반복되는 국가폭력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과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는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공히 이제 죽어 말할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살아남은 자가 과거를 ‘증언’ 하는 형식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에서 그것은 한국전쟁기를 포함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군 의문사 사건’ 이고,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는 죽음으로 향거한 전태일의 삶이 이소선 여사에게 남긴 상흔과 전태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과정의 유장한 개인적 기억들이다.

먼저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의 경우. ‘군 의문사’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군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병사들 자신이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이 책에 수록

된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병사들의 죽음을 촉발한 계기를 이루었던 다채로운 사건의 인과관계는 대체로 은폐되어 있거나 망실된 상태인 것이 현실이다. 사건의 은폐와 증거망실의 일차적인 책임은 군대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기구에 있고, 이 비통한 죽음의 진상을 방치했던 주체 역시 국가기구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무책임 더 나아가서는 사건은폐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국가폭력의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군의문사진상추진위원회의 활동은 국가권력이 국가폭력과 국가기구의 무책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짊어진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추궁의 주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문사’ 했던 병사들 자신이다. 그러나 국가폭력을 징치(懲治)해야 할 당사자는 죽은 까닭에 부재한 상황이며, 따라서 이 증언과 고발의 몫을 유족들이 ‘대행’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행’ 해야 될 유족들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가권력에 의해 봉쇄되어 있기에 군의문사진상추진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재심과정은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특별법에 의해 성립된 진상추진위원회는 설사 어렵사리 진상을 밝혀낸다고 할지라도, 곳곳에서 상충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복잡한 심의체계와 충돌한다. 한국전쟁기 국민방위군 사건의 희생자나 최근의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는 국가권력(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과 그것과 길항하면서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또 다른 국가권력의 충돌(일선 군부대, 국방부, 법무부, 보훈처, 국립현충원)은 차치하고라도, 설사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졌다고 할지라도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보훈처’와 ‘국방부’ 등이 보여주는 고압적 태도들은 진실로 국가가 자신의 역사적 무책임과 폭력을 반성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다.

예컨대 오늘의 살아있는 유족들은 죽어간 망자의 고통을 증언하고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필사적으로 밝혀내고자 애쓰지만,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오늘의 국가에 의한 모욕과 또 다른 폭력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유족들에 의해 가해지는 1차폭력은 사건이 일어났던 해당 군부대의 사건은 꾀조작이다. 거의 모든 군의문사 사건들의 공통점은 죽음의 책임이 죽음을 통해 폭력에 대한 저항을 고발하고자 했던 죽어간 병사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이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군의문사를 경험한 거의 모든 유족들은 고압적인 일선군부대의 사건처리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체험을 고통스럽게 피력하고 있다. 설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국방부나 법무부와 같은 상급 국가 기구는 순순히 ‘순직’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국방부와 법무부 앞에서의 진실규명을 위한 시위과정 속에서 또 한번의 모욕과 국가폭력을 경험한다. 물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설사 ‘순직’ 판정을 받아낸다고 해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희생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순직’이라 할지라도 원인을 불문하고 ‘자살’에 해당되는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처의 거부는 지속된다. 유족들은 또 한번 법적 쟁송 및 시위와 직접행동을 통해서 진실을 증언하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살아 있는 유족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모욕과 정신적 폭력은 끈질기게 반복된다. 설사 보훈처에 의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고 오태환 상병의 동생인 오진환 씨의 사례가 그런 경우다. 현행 국가유공자등록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시점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가족만이 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가령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군의문사’ 사건과 같이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이나, 설사 시간적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발생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문사한 병사의 직계존비속이 생존하고 있지 않다면, 형제라고 해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의 간략한 진술에서 알 수 있듯 의문사 희생자는 죽은 이후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모욕과 폭력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특히

살아남아 비통한 진실을 증언해야 할 유족들 역시 기묘한 형태로 국가폭력과 모욕에 거듭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국가폭력은 단죄되거나 지양되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된다는 상황의 아이러니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살아남은 유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고통을 현실 속에서 거듭 반복하는 악무한적 부조리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은 잘 보여준다. 국가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가 필요한 지점이다.

3. 복화술의 목소리, 전태일 정신의 증언

시인이자 르포작가인 오도엽이 2년여에 걸친 이소선 여사와의 녹취와 재구성을 통해 출간한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는 전면적인 구술집도 아니고, 편집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구성한 전형적인 르포르타주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일련의 서사적 장치의 도입을 통해서, 전태일의 죽음은 물론 이후 전개되어 나간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이소선 여사의 개인적 기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유려하게 응결시키고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전태일의 목소리가 유력한 배음으로 깔려 있으면서도, 그것이 다시 이소선 여사의 목소리와 겹쳐진다는 것이며, 다시 그것이 이 책의 저자인 오도엽의 또 다른 목소리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 오도엽은 이소선 여사가 전태일의 기억을 일종의 복화술에 가까운 현재형으로 살려내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고, 때로 그 자신의 목소리를 보태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저작은 저자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이중의 복화술로 구축되어 있는 희귀한 비허구 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목소리’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소선 여사가 말하고 그것을 듣고 있는 오도엽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실의 증언’이고 ‘기억의 복원’이다. 이소선 여사의 육성을 들어보면 이렇다.

너 뭐할라고 녹음하나? 그러니까 엄마 기억을 지금 안 모아 놓으면 나중에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는 거야. 늙어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내가 뭐 제대로 산 것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뭐할라고 녹음하나? 하니까, 그냥 냅두고생각이나 잘 해보래.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하라. 참 별난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 난 태일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쳐 버리거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사흘을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해. 그래도 했어. 지금 해야지 지금 안 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별난 놈한테도 속도 없이 별난 말을 다 했어. 그리고 가슴이 아프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많이 했어.(pp. 9-10)

‘목소리’를 기록하는 이유가 ‘사실의 증언’과 ‘기억의 복원’에 있다는 점 말고도, 우리는 경상도 출신이지만 충청도와 전라도 억양이 뒤섞인 이소선 여사의 육성의 구체적인 질감을 확인하면서, 마치 목전의 고백을 듣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생하게 이소선 여사의 육성을 기록하고 있는 오도엽 역시 이러한 육성의 기록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작가적 인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즉 그의 기록은 “역사란 영웅들의 각축장이 아닌 보통사람들의 생활세계로 서술”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민중생활사적 의욕과 “‘노동운동의 대모’ ‘열사의 어머니’ 등 숭한 수식이나 매개된 정체성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이소선을 말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이것은 산 인간의 열망과 절망을 정직하게 기록함으로써, 유형화되거나 도식화된 의사 영웅전기와 같은 글쓰기의 허위의식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이런 글쓰기의 의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시기로부터 오늘의 이명박 시대까지의 민주화의 역사는 이소선 여사에게 강렬한 역사적 책임을 지속하게 한 청계피복노조라는 동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전태일

의 기억에 역사적 부채의식과 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였던 민주화인사들과의 교류와 투쟁의 기록들이 매우 생생하게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공식역사 서술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생생한 역사적 장면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가령 『사상계』의 발행인이었으나 박정희 정권과의 갈등 끝에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이 당일 함석헌 선생을 찾아갔던 이소선 여사와 조우했고, 함석헌 선생이 등산을 가겠다는 장준하 선생의 신변안전을 경고했으나 결국 의문사한 일. 그리고 1987년 이후 이소선 여사가 유가협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에 은거하고 있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에게 서화를 기부받으러 갔던 장면이나, 그림을 팔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김대중 총재의 자택으로 찾아가 막 부가내로 그림을 내려놓고 후원금을 수급하던 장면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이 책의 후반부에서 이소선 여사가 가장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 오늘의 노동운동이 단결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반목과 분열의 책임을 추상같은 호통으로 비판하는 장면이나(“비정규직이 70년대로 따지면 시다 아니냐”), 유가협 활동을 벌이면서 의문사가 과연 민주화 운동일 수 있는가라는 분열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현장에서의 지식인들의 분파적 과별주의가 갖고 있는 해악이나 진보정당의 분열에 대한 삶의 체험에 기반한 비판은 매우 울림이 큰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또한 매우 강렬한 배움으로 깔려 있는 것은 전태일 정신에 대한 이소선 여사의 재정의일 것이다. 여사는 전태일의 죽음을 분신자살로 명명하는 일반화된 논법에 강렬하게 저항하여 그것을 ‘분신항거’로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전태일을 ‘열사’나 ‘투사’로 부르지 말고 ‘전태일 동지’로 불러줄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육친으로서의 비통함을 뛰어넘어,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고통받는 수많은 전태일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여사의 고통스런 육성이 뿜어내는 진실이기도 한 것이다.

4. 기록자-청자의 작가적 태도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과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상의 간략한 논평이 이 두 권의 책이 뽑어내고 있는 강렬한 문제의식과 개성적인 면모에 대해 충분한 논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의 경우 기록자가 유족들과의 취재를 통해 군의문사 문제의 논점들을 비교적 성실하게 포착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그것은 유족들이 실제로 모욕과 폭력적 상황에서 직면해야 했던 국가기구에 소속된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와 취재가 함께 결합되었다면 좀 더 생생한 기록물로서의 성격을 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 역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태일의 육친으로서의 애정과 전태일 정신과의 만남에 대한 여사 개인의 추억의 강렬함에 기인한 문제이겠지만, 이제는 각자 진로를 달리 하고 있는 이부영, 김문수, 장기표, 박래군을 포함한 이소선 여사가 만났던 지인들 모두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일관되게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로 기억된다는 것은 사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는 않지만, 기록자인 오도엽의 관점에서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집자적 논평을 가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전태일의 입장에서 어떤 자들은 고마움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을까.

모든 르포작가는 진실을 발굴하려는 의욕을 억압받은 사람들의 편에서 기록해야 마땅하지만, 실상 지난 사회역사적 현실의 모순 속에서 우리들이 더욱 끈질기게 그 목소리를 받아 적어야 할 사람들은 국가폭력의 매개자들이 된 가해자들이고, 그것의 거대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모순구조의 핵심인 국가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포작가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증언하는 것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끝끝내 고백을 거부하는 가해자들과 그것을 강요하게 만든 국가권력 전체의 성격을 날카롭게 질문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두 편의 비허구 기록물이 가

지고 있는 장점과 함께 후속작업에서 극복되어야 할 부분 역시 뚜렷하다.

동시에 르포적 글쓰기의 방면에서도 일종의 리얼리즘적 객관화의 작가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백자의 구술을 기계적으로 받아쓰지 않는 한, 증언의 맥락을 풍부하게 제시하면서도 ‘고백자’에게 감정이입될 확률이 높은 기록자(청자)의 자못 치열한 ‘비관적 거리유지’의 문제가 분명한 자의식 속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백에서 출발한 증언이 참된 증언의 고백을 넘어선 역사적 사료로 독자들에게 기꺼이 수용될 수 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